



이은애(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 문명, 국가, 민족이 파괴되고 파멸하며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온다. 와서스트롬(R. Wasserstrom)은 전쟁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 혹은 민족과 민족 간에 발생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력 혹은 폭력이 사용되는 제한적 외교 수단 혹은 무제한적 투쟁이라고 정의한다.¹ 전쟁 자체가 물리적인 힘, 즉 살인, 상해, 방화, 폭파, 공공 건물 및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1966)

1 Richard Wasserstrom, "On the Morality of War: A Preliminary Inquiry", *Stanford law Review*, vol 21 (1969), 1632-1633. 이민수, 「전쟁과 윤리-도덕적 딜레마와 해결방안의 모색」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8), 42에서 재인용.

사적 재산의 파괴 등의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폭력행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국가와 민족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과 인종, 특정 영토와 문화, 종교, 민족 정체성 등 다층적으로 구분되는 권력의 차원이 서로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한다.

구약성서 안에서 전쟁 내러티브는 이러한 복합적 형태의 전쟁을 잘 드러내는데 즉, 고대 이스라엘 시대와 역사 안에서 민족, 사회적 계급, 종교 등의 갈등과 대결 상황을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대결, 폭력과 또 다른 폭력의 대립, 간헐적인 전투와 일시적인 평화를 반복하는 사회와 시대를 반영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과 폭력의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구약성서의 전쟁 내러티브를 선택하여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력과 힘에 의한 폭력과 그에 대항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의 정당성, 그리고 민족과 계급, 종교와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과 억압에 근거한 충돌, 강자의 승리라는 전쟁의 일반 원칙을 뛰어 넘는 전쟁 해결이라는 성서의 독특한 관점으로 본문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성서 본문이 궁극적으로 전쟁의 잔인한 폭력성과 무모함을 고발하고 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저항 폭력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며 결국 전쟁이 아닌 평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9.11 테러에 대한 충격과 보복으로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대테러 전쟁의 해’를 선포하고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군사적, 정치적 압박과 강제를 행사하면서 기독교 신학 분야에서도 전쟁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국 전쟁과 한국 기독교의 관계는 그 이전부터 행해왔던 연구주제이며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학관계를 발견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² 또한 전쟁과 폭력에 대한 입장들과 그에 대한 기독교 현실주의적 이해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연

구,³ 전쟁과 평화에 대한 현대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⁴ 한국의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기독교 사회 윤리적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도 행해졌고⁵ 동북 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에서 성전론, 정의로운 전쟁론, 정의로운 평화론으로 이어지는 한국 기독교의 평화 담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⁶ 성서의 '평화' 개념에 대한 주석적 분석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⁷

구약학 분야에서도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전쟁 이해, 즉 야웨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개념과 이슬람의 성전(지하드)과 비교하여 전쟁의 정당성, 등 논쟁점들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으며⁸ 구약성서에 나타난 전쟁의 유형 구분으로부터 전쟁의 기원과 원인을 설명하기도 했다.⁹ 또한 구약성서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찾아내기도 하고¹⁰ 전쟁에 반대하고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적 정의를 의미하는 성서적 평화의 개념을 예언서 본문에서 찾는 연구들도¹¹ 활발하게 이루어

-
- 2 김홍수, “한국 전쟁과 기독교, 1950-1953”, 『종교문화연구』 제2호 (2000), 29-49; 윤정란, 「한국 전쟁과 기독교」 (파주: 한울, 2015); 서정민, “전쟁과 종교 신념의 문제: 한국 전쟁 전후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관계 규정”, 『역사와 현실』 99 (2016), 273-282. 이은선 외, 『3.1운동과 이후 기독교』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 3 이장형,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독교 현실주의적 이해”, 『대학과 복음』 10 (2004), 243-259.
 - 4 유경동, “평화와 전쟁, 그리고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과제”, 『신학과 세계』 62 (2008), 235-288.
 - 5 이창호,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의 전통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 (2010), 223-268.
 - 6 박신배, 『평화학』,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1); 안교성, “한국 기독교의 평화 담론의 유형과 발전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 (2017), 197-223.
 - 7 최승정, “민족 화해를 위한 성서적 고찰: 성서의 갈등 구조 내에서의 평화”, 『신학전망』 151 (2005), 27-55.
 - 8 강사문,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기독교신학논총』 26 (2002), 27-79.
 - 9 강사문, “전쟁에 대한 성서적 이해”, 『선교와 신학』 26 (2010), 13-40.
 - 10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 (2018), 125-155.
 - 11 최순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지자적 이상: ‘보습을 쳐서 칼을’ 아니면 ‘칼을 쳐서 보습을’?(이사야 2:1-5, 미가 4:1-5, 요엘 3:1-10의 성경적 해석)”, 『개혁논총』 30 (2014), 329-358; 홍성혁, “메시아 예언 본문들에 나타난 ‘살림’(평화)”, 『구약논단』 55 (2015), 121-152;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많은 전쟁 내러티브 중에서 민족, 사회 계급, 종교와 젠더 간의 갈등과 대립 구도가 포함된 본문들, 즉 사사기의 전쟁 내러티브 두 본문(삿 4:5장-삿 9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¹²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외경 유딧기를 통해서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권력관계의 갈등과 대립, 그 과정에 동반되는 폭력적 특징들과 파괴적 결과들을 드러내어 전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남성 중심의 전쟁 속에서 다양한 구분과 경계를 넘어선 인물인 한 여성의 저항 폭력으로 인한 전쟁 종결과 평화의 도래라는 젠더적 관점¹³에 의해 전쟁 내러티브를 읽음으로써 성서 속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전쟁 내러티브의 패턴: 복합적 대결 구도

구약성서는 많은 전쟁 내러티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고대 전쟁의 폭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의 과정 속에 발생하는 속임이나 약탈과 파괴, 강간과 폭력, 살인과 대량학살 등 끔찍한 폭력성에 대한 윤리적,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성서의 전쟁 내러티브는 종종 당연하고 일반적

창을(을 3:10aH 4:10a):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구약논단」 62 (2016), 14-43; 차준희, 「거짓 평화와 참 평화: 미가 4장 1-5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0 (2018), 156-175.

12 처음 연구계획에는 히브리 성서(MT) 외에 그리스 번역 성서인 칠십인역(LXX)의 유딧기(Judith) 본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논문 분량이 길어져서 따로 떼어 연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다루었다. 이은애, 「대립구도로 읽는 유딧기-통념 뒤집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7-37.

13 성서의 전쟁 속 여성의 저항폭력에 대한 젠더적 관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우리 역사에서 일제의 무력적, 폭력적 지배에 맞선 다양한 저항 운동 중 여성독립운동가의 무력항쟁에 대해 정치적, 민족적, 사회적, 성별적 억압과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위와 사회 체제를 열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평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 통념을 벗어나는 결말에 이르게 한다는 특별한 신학적 교훈을 준다. 사실 구약성서의 역사는 많은 전쟁을 서술하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전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특징은 수적으로나 병력으로나 절대 약세인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야웨의 놀라운 권능과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특히 사사기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전쟁 내러티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웨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신들을 섬김 →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넘겨주어 지배를 받게 함 →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음 → 야웨 하나님이 사사(צַדִּיק/쇼페트)¹⁴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함’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다.¹⁵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배반의 역사 패턴은 유사한 형태로 왕정시대까지 이어진다.¹⁶ 즉 이스라엘이 겪는 전쟁의 억압과 괴로움의 상태는 종교적으로 야웨 신앙과 이방신 신앙의 대립으로부터 야기되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과의 대립이라는 다층적인 억압과 폭력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서의 전쟁 내러티브 속의 다양한 측면의 갈등과 대립을 이해하기 위해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래 이 개념은 흑인 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이해할 때 젠더와 인종이 서로 교차

14 여기서 사사(쇼페트)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צַדִּיק) 것으로서(삿 2:16,18; 3:9,15) 그를 ‘구원자’(모쉬아)로 표현하기도 했으며(삿 3:9, 15)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법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왕정시대의 재판기관(삼하 15:1-6)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Erich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95), 142.

15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패턴은 삿 2:11-19에 전체적으로 설명되며 그 뒤에 이어지는 개별적인 사사들의 이야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삿 3:7-11(온니엘), 삿 3:12-30(에훗) 등. 사사기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0 (2021), 132-134, 각주 2)

16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I」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14. 원저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95).

하는 다양한 차원의 다층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¹⁷ 여기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속하는 다양한 위치들이¹⁸ 서로 교차하여 결합되면서 전쟁의 폭력과 억압 속에 포함된 복합적 대립과 대결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개인과 단체는 물론 사회구조와 경제 권력, 인종/종족-민족적 권력 그리고 젠더 권력은 교차하며 서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낸 적대감의 가장 폭력적인 표현이다.”¹⁹ 구약성서 사사기의 전쟁 내러티브에서도 이러한 다층적 대립의 구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즉,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 대립과 갈등 뿐만 아니라 젠더적 대립이 그것이다. 그러한 복합적, 교차적 대립 속에서, 당연히 승리하리라고 생각되는 우세한 쪽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쪽이 승리하고 전쟁을 끝나게 함으로써 인간의 지혜나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젠더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한 여자가 전쟁을 주도하는 권력자를 죽임으로써 전쟁을 끝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저항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과정과 의미에 주목하도록 할 것이다.

17 ‘교차성’은 미국 페미니스트이자 법학 교수인 크렌쇼가 흑인여성이 경험하는 인종, 계급, 젠더 등의 다중적 차별을 나타내기 위해 1989년 처음 사용한 용어이지만 그것은 단일하고 체계적인 이론이라기 보다는 차별의 경험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진희, “교차성은 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가?”, 『마르크스 21』 16 (2016), 37-38.

18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 ‘위치’는 내러티브 속 인물들의 위상학적,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참조) 정현주,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경제시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3 (2015), 299. 주1)

19 신시아 코번, 「여성, 총 앞에 서다: 전쟁과 폭력에 도전하는 여성반전평화운동」 (김엘리 옮김), (서울: 삼인, 2009), 51. 원저 Cynthia Cockburn, *From Where we stand: War, Women's Activism and Feminist Analysis* (London/New York: Zed Books, 2007).

3. 복합적 대결 구도 속 역설적 승리(사사기 4-5장) : 저항 폭력의 의외성

사사기 4-5장에 나타나는 전쟁 내러티브는 배반-억압-부르짖음-구원이라는 사사기의 이야기 패턴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앞의 세 사사, 옷니엘, 에훗, 삼갈의 이야기보다는 더 길고 자세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는 민족과 종교와 성별이 교차하며 서로 대립하면서 진행된다. 첫 번째 대결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척점엔 아직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재판관으로 활약하던 사사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군 바락이 서 있다. 발달된 도시 국가의 왕정과 체계화된 군대조직과 철 병거 구백 대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가나안과 사사를 중심으로 한 지파동맹체제 이스라엘의 대결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은 전혀 대등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불리해 보인다.

두 번째 대결은 가나안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 사이의 종교적 대립이다. 전쟁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웨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삿 4:1) 가나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야웨를 버리고 주위의 있는 백성의 신들, 즉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삿 2:11-13)을 의미한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두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력적인 전쟁은 다른 한편 바알과 야웨 사이에 발생하는 종교 전쟁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야웨가 이스라엘의 바락 앞에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군대는 패배했고 가나안의 신 바알도 패배한 것이다.

세 번째 대결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גִּבּוֹרָה/쇼페타, 삿 4:4)로 등장한다. 버틀러(T. C. Butler)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가 여성 드보라였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 지도력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

험에서 구원하는데 여성에게 의존해야 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²⁰ 그러나 드보라를 소개하는 명칭으로 쇼페타(여사사) 외에도, 구약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여자(אִשָּׁה/이샤), 여선지자(נְבִיאָה/네비아, 사 4:4)를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여성 사사로서의 특별성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²¹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인 라마와 벤엘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사 4:5)는 별다른 설명없이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사로서 드보라의 사역은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사 드보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야웨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예언한다.²² 그러나 바락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사 4:8)고 대답하는데 이것은 보통 바락이 자신감이 없을 내과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²³ 그러나 젠더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 군대 지도자이며 남성인 바락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략적으로도 미숙한 여사사인 드보라의 선포의 권위를 믿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⁴ 그래서 드보라를 시험하여 그가 그 예언의 말씀에 목

20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323. 원제 Trent C. Butler, *Judge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8).

21 윗글, 325.

22 다른 사사들이 재판의 사명만 감당하든지 혹은 전쟁의 임무를 감당함으로써 사사로 인정된 반면 드보라는 전쟁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후에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사들과 구분된다. Mieke Bal, *Murder and difference - Gender, Genre, and Scholarship on Sisera's death*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52.

23 왜냐하면 그리스어 본문(LXX)에는 ‘야웨의 사자가 그날에 내게 승리를 줄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부가문이 있으며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지만 이번엔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멸 짓기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24 D. N. Fewell, 「사사기」, in: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95. 원제 Carol A. Newsom & Sharon H. Ring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숨을 건다면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바람의 불신으로 인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직접 얻지 못하고²⁵ 예상치 못한 한 여자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삿 4:9) 이 예언은 결국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죽임으로써(삿 4:21) 성취된다.

이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사이에서 네 번째 대결이 일어난다. 야엘의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정치적 연대는 사사기 4:18 이하에서 야엘이 시스라를 환대하는 일련의 행동의 이유를 제공한다.²⁶ 야엘은 걸어서 도망친 군대장관 시스라를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 오게 하고 이불로 그를 덮고 요청한 물대신 우유를 마시게 한다(삿 4:18-19). 야엘이 시스라에게 제공한 행위는 겁과 보호와 젖 등으로 표현되는 모성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내게로 들어오소서’,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삿 4:18) 등은 성적인 암시를 주기도 한다.²⁷ 야엘의 장막에서 잠이 든 시스라는 장막 문에 서서 지키라고 명령하지만(삿 4:20) 야엘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장막 말뚝을 방망이로²⁸ 그의 관자놀이에 깊이 박아 시스라를 죽인다(삿 4:21).

야엘의 이 폭력적이고 갑작스런 행동은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²⁹ 실용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

25 사무엘상 12:9-11 70인역 역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들의 명단에 여룹바알, 입다, 사무엘과 함께 바락(MT에는 베네)이 언급되어 있다.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207, 215. 원저 Ralph W. Klein, *1 Samuel* (Waco: Word Books, 1983).

26 아마도 그 동맹관계는 목초지와 물 때문이었을 것이며 고대 근동의 환대법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J. 알베르트 소긴, 「관관기」(한국신학연구소 학술부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119. 원저 J. Alberto Soggin,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1).

27 Bal, Schneider, Niditch, Lindars 등, 버틀러, 윗글, 345-347에서 재인용. 버틀러는 성적인 암시에 반대하지만 니디치(S. Niditch)는 야엘이 시스라에게 한 말이나 행동(삿 4:18-19), 그리고 후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 시스라가 야엘의 발 앞에 꾸부러졌다는 표현(삿 5:27) 등이 성적인 관계를 암시한다고 본다. S.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A Study in the Ethics of Viol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14.

28 당시에 장막을 세우는 일은 여자의 일로서 장막 말뚝이나 방망이는 야엘의 생활양식에 속한 도구로 볼 수 있다. 버틀러, 윗글, 349.

29 J. 알베르트 소긴, 윗글, 120.

쟁의 승자는 패자 편 여성들을 포로로 잡고 강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그는 살기 위해서 가나안과의 협정 파기와 군대 장관 시스라의 살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³⁰ 퍼웰(D. N. Fewell) 또한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이루어진 정치적, 경제적 조약 대신에 곧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급박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³¹ 이어지는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 중에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의 승리를 기대하며 한 말 ‘용사마다 한 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삿 5:30)에서 처녀는 히브리어 ‘자궁’(צַדִּיק/라함)을 번역한 것으로 전쟁에서 진 편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를 암시한다. 그들은 살해되거나 강간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³² 이런 상황에서 야엘은 남성들 간의 정치적인 협정관계 대신에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저항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야엘은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구분에 있어서 애매한 위치를 가진다. 그녀는 오히려 가나안과 정치적 연대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야웨 숭배자라는 증거 또한 전혀 없다. 시스라에게 보여준 처음의 환대와 이후의 폭력적인 살해 사이의 격차는 전쟁의 한 복판에 살아가는 여성의 복잡한 위치성, 그가 처한 자리의 교차성을 보여준다. 그는 전쟁을 주도하는 편에 속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자신도 전쟁의 피해자였고 결국 전쟁을 주도한 남성 시스라를 죽이는 저항 폭력으로써³³ 전쟁을 끝내고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30 T. 버틀러, 윗글, 338.

31 D. N. Fewell, 윗글, 196. 야엘의 행동에 대한 19세기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rion Ann Taylor/ Christiana de Groot(ed.), *Women of War, Women of Wo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114-154.

32 윗글, 197.

33 애인이나 어머니로 가장한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는 게릴라 전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Susan Niditch,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67.

사사기 4-5장의 전쟁 내러티브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 리더들과 대결하고 비교되며 결국 그들을 옆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키솔름(R. B. Chisholm)은 문학적 차원에서 드보라가 바락을 영웅 자리로부터 밀어내는 것처럼 야엘이 헤벨을 밀어내고 있다고 말한다.³⁴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전쟁인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 사이의 긴장, 시스라와 야엘 사이의 사건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적 대결을 보여주면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성별역할을 뛰어넘는 서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 폭력과 살인으로 점철된 전쟁 속에서 정치, 민족, 종교적 구분과 경계를 넘어 위치해 있는, 전혀 이외의 인물인 야엘의 저항 폭력은 마침내 전쟁을 끝나게 하고 그 땅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되었던 것이다(삿 5:31).

4. 인간 왕권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 폭력(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의 전쟁 내러티브는 사사기의 다른 전쟁 내러티브들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폭력적 위험이 외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세겜은 오래된 가나안 성읍으로(창 12:6; 33:18이하)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거주지역으로 나타나지만(수 17:7; 20:7 등) 사사기 9장에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불법한 군주제도의 공범자로서 멸망을 당하는 도시로 등장한다. 왕정시대에 이르러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왕으로 즉위하며(왕상 12:1)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는(왕상 12:25) 등 세겜 도성은 이스라엘의 도시로 다시 등장하며 새로운 왕권과

34 Robert B. Chisholm,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Stylistic Variation as a rhetorical technique in Judg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4 (2009), 175-176.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사사기 9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웨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또 기드온의 가족에게도 은혜를 갚지 않았다’ (삿 8:33-35)고 설명된다. 여기서 세겜은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고향이고(삿 8:31; 9:1-3) 그의 친척들이자 세겜 주민 들은 바알브릿을 섬기며 그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어 아비멜렉은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하였다(삿 9:4). 즉 세겜 주민들은 이스라엘 내부에 속해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형제살인의 피 위에 왕권을 세우도록 동조했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던 에벳의 아들 가알은 아비멜렉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삿 9:26-29).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의 전쟁은 야웨와 바알/바알브릿 사이의 종교적 대결이면서 동시에 기드온의 후손인 아비멜렉과 세겜의 가나안 족속 조상인 하몰의 후손 사이의 민족적 대결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비멜렉은 가알을 상대하여 싸워 물리치는 (삿 9:39-41)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겜 성을 점령하고 그 곳에 시는 백성을 모두 죽이는 큰 보복을 행한 것이다.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 이야기는 왕권이 가지는 위험성과 악함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본문의 배치는 왕권제의를 거절한 경건한 지도자 기드온과,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학살과 강탈과 파괴를 일삼는 왕 아비멜렉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³⁵ 아비멜렉의 즉위(삿 9:1-6)와 폭정으로 인한 몰락(삿 9:22-57) 사이에 놓여있는 요담의 우화(삿 9:7-21)는 가시나무로 비

35 J. 알베르트 소긴, *삿*, 279.

유된 아비멜렉의 왕권이 가지는 파괴적 위험성을 잘 드러내며³⁶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세겜에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은(삿 9:6) 3년 후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성을 헐고 그 곳 사람들을 죽이며 소금을 뿌려 저주를 하고³⁷ 지하동굴로 피한 사람들에게까지 불을 놓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다스리던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없애버리는 포악하고 어리석은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삿 9:22 이하). 본문은 그 때 죽은 남녀가 천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삿 9:49). 그의 복수 방법은 끔찍하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대학살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세겜의 망대’(삿 9:46)는 요새나 신전, 망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의 신인 연약의 신, ‘엘브릿’의 신전이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마지막 구원을 기대했을 것이다.³⁸ 그러나 아비멜렉은 신전으로 들어가는 비밀통로³⁹에 나뭇가지로 불을 놓아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

나아가 아비멜렉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데베스⁴⁰로 가서 그곳에 맞서 진치고 점령하려하고 백성들이 도망친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불을 놓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사르려고 했다. 폭력적 전쟁은 범위를 넓혀가고 무관한 사람들을 희생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 때 망대 위에 한 여인

36 요담의 비유는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왕정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결국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렌트 버틀러, 윗글, 603.

37 땅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행동으로 신 29:23(히브리어 22절)에 의하면 소금을 뿌린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아서 수확할 수가 없고 결국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된다(시 107:33-34; 렘 17:6; 속 2:9). 윗글, 618-619.

38 윗글, 619-620.

39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보루, 새번역성경에서 지하동굴로 번역된 체리아흐(תַּיָּאֲחַ)는 터널이라는 의미로 엘브릿 신전에 속하는 요새 부분, 안전한 지역, 은신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윗글, 589-590.

40 세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오늘날 투바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추정되나 동일한 곳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삼하 11:21에도 데베스가 이 본문과 연관되어 언급되어 있다. J. 알베르토 소긴, 윗글, 277-278.

이 멧돌의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삿 9:53).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자’는⁴¹ ‘이샤 아하트’(חַיָּה אֶחָד)를 번역한 것인데 이전 본문들에 나타난 수사들과 연결되어 대비되는 효과를 지닌다.⁴² 아비멜렉이 세겔에 사는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여룹바알의 칠십명 아들보다 ‘한 사람’(אֶחָד אִישׁ/이쉬 에하드), 즉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낫다고 설득했는데(삿 9:1-2) 그 ‘한 사람’, ‘한 남자’가 ‘한 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형제 70명을 ‘한 바위’(אֶבֶן אֶחָד/에벤 에하트) 위에서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은(삿 9:5) 이제 ‘한 돌’, 멧돌 위쪽에 맞아 죽는다.⁴³ 형제 살인, 그것도 대량학살에 힘입어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의 악행은 이제 망대로 도망친 이름없는 한 여자에 의해서, 그리고 무기가 아니라 평범한 도구인 멧돌 한 쪽에 의해서 끝나게 된 것이다.⁴⁴ 이로써 방화와 대량살상으로 이루어진 이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은 끝이 난다(삿 9:55). 아비멜렉은 여자가 그를 죽였다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옆에서 무기를 들던 청년에게 칼로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청년이 칼로 찔러 죽이지만 아비멜렉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기 때문이다(삿 9:53; 삼하 11:21). 아비멜렉에 의한 전쟁은 종교적, 민족적 대결이기도 하지만 사사기의 기록은 결코 아비멜렉 편이 아니다. 아비멜렉은 야웨를 섬기는 기

41 세겔에서 아비멜렉에 반역했던 가알(삿 9:26)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등장하는데 가알은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에 실패한 반면 이 여자는 아비멜렉을 죽게 만든다. 트랜트 버틀러, 윗글, 620.

42 여기서 ‘한’은 ‘어떤 여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여성’(a lone woman)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임신호, “기드온 이야기(삿 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삿 9장)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72(2019), 79.

43 박유미, 『사사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02, 각주 18.

44 이 여자가 사용한 멧돌 위쪽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삿 3:31)나 야엘의 장막 말뚝과 방망이(삿 4:21)처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평범한 도구였고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서처럼 작은 자, 사소한 것을 사용해서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방법임을 나타낸다(삿 9:56-57). 트랜트 버틀러, 윗글, 620-621. 특히 멧돌 위쪽은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야엘이 사용한 무기와 마찬가지로 가정용 도구로 볼 수 있다. S. Niditch, 윗글(2008), 118.

드온의 아들이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고 그를 지지한 세겜 사람들은 진실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다(삿 9:16). 불의한 연합은 결국 배반으로 이어졌고 더 확대된 폭력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을 따라 세겜 사람들을 죽이며 성을 파괴하는 그의 백성들(삿 9:43, 48-49)은 ‘이스라엘 사람들’(삿 9:55)이고 그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죽자 각각 자기 사는 곳으로 흩어졌다. 불의한 왕을 세우고 따라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를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아비멜렉과 함께 실패한 것이다. 이 내러티브는 이미 아비멜렉의 왕권과 군주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⁴⁵ 군주제에서 발생하는 사회 계급과 계층, 권력을 둘러싼 투쟁 등으로 그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억압의 상황을 세겜과 데베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본문은 모든 문제를 전쟁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전쟁 편익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⁴⁶ 전쟁에 의한 폭력적인 왕권은 하나님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했고 축복받지도 못했던 것이다.

사사기 9장의 전쟁 내러티브에서도 중층적 대결 구도, 즉 차별과 폭력의 교차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종교적이고 사회 계층적이며 동시에 성별적 대결이다. 즉 야웨 하나님의 왕권과 인간 왕권의 대결, 야웨 신앙과 바알/바알브릿 신앙의 대결, 기드온 후손 아비멜렉과 세겜의 가나안 족속 조상인 하몰의 후손 사이의 민족적 대결, 스스로 세운 왕권과 배신한 백성의 대결, 그리고 최고 권력자 아비멜렉과 망대 위 한 여자의 대결인 것이다. 데베스에서 망대에 올라가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 죽인 한 여자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혹은 종교적으로 야웨 숭배자였는지는 알 수 없다. 사

45 스타인버그는 이 본문이 친족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못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Naomi Steinberg, "Social-Scientific Criticism: Judges 9 and Issues of Kinship", in: Gale A. Yee (ed.), *Judges & Method -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2.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63.

46 S. Niditch, *윗글*(1993), 124.

사기 9장의 전쟁 내러티브에는 전쟁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백성들을 ‘남자와 여자’(삿 9:49), ‘모든 남자와 여자들’(삿 9:51)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신 숭배자들이었지만 전쟁의 한 가운데 있으며 집단학살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남자와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멧돌 한쪽을 무기삼아 비합법적이고 포악한 군주 아비멜렉의 폭주를 끝냈으며 그 저항 폭력으로 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전쟁은 끝이 난 것이다.

5. 폭력적 전쟁을 끝내는 저항 폭력

위에서 살펴본 전쟁 내러티브들은 정치, 민족, 종교, 계급, 성별이 서로 뒤섞여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강한 쪽, 승리가 예상되는 쪽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승리하게 되는 유사한 이야기 틀로 되어 있다. 사사기의 전쟁 내러티브는 폭력적 전쟁과 왕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그 강한 능력에 반대되는 약한 것, 위의 두 본문에서는 전혀 의외의 인물, 즉 정치, 민족, 종교적인 경계 위에 위치한 한 여자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결국 평화를 가져온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한 여자가 강력한 군대 지도자를 죽이는 저항폭력을 통해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을 끝낸다는 특이한 전쟁 서사는 성서 외에 유딧기 본문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⁴⁷ 즉 유대여자 유딧이 앗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 자루에 담아 나왔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문

47 유딧기는 히브리 성서에는 없고 그리스어 성서인 70인역에 포함되어 개신교에서는 정경에서 제외된 외경으로 분류되지만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에 포함된 책으로 기원전 2세기를 실제적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이다.

학, 미술 등 많은 예술작품들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딧기의 유딧은 사사기 45장의 여성전사들의 모습을 상기시키고⁴⁸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성서 속 사사들의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다.

유딧기의 이야기는 앗시리아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와 위협 앞에 이스라엘이 곧 파멸 직전에 놓인 위태로운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유딧 1-7장). 앗시리아의 군대 총 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가 유대 도성 베틀리아를 포위하고 물을 끊어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위기의 순간에 유대 여자 유딧은⁴⁹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적진으로 들어간다. 과부의 옷을 벗고 화려한 옷과 향유를 바른 아름다운 유딧은 계획대로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여 술에 취해 잠들게 하고⁵⁰ 그의 목을 칼로 내리쳐서 음식을 담았던 자루에 넣어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온다. 적장의 목을 확인한 유대인들은 힘을 얻어 앗시리아의 군대를 역공격하고 결국 베틀리아와 그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유딧 10-13장).

유딧기의 전쟁 내러티브 또한 전쟁의 폭력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속의 다층적 대결구도를 포함하고 있다.⁵¹ 앗시리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가 벌이는 전쟁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와 힘으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죽이고 억압하

48 Mark S. Smith, "The Passing of Warrior Poetry in the Era of Prosaic Heroes", 9. in: John J. Collins/T. M. Lemos/ Saul L. Olyan (ed.), *Worship, Women and War: Essays in Honor of Susan Niditch*, Brown Judaic Studies vol.357 (Providence: Brown University, 2015).

49 유대 여자라는 뜻의 유딧은 과부였으나 아름답고 부유하며 인격과 덕망을 갖추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율법에 충실하며 경건한 사람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이상적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채은하, "외경", in: 이경숙 외,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66-267.

50 유딧의 이 방법은 용감한 여성지도자, 영웅으로서 평가할 수도 있고, 백성을 구원하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자의 여자'의 행동으로도 평가될 수도 있다. 채은하, "외경의 여성들: 유딧과 수산나", in: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성서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09-311. P. J. Milne, "What shall we do with Judith?": A feminist reassessment of a biblical "heroine", *Semeia* 62 (1993), 37-58.

51 이은애, 율글 참조.

는 가장 폭력적인 형태이다. 유대의 작은 마을 베툴리아를 향한, 앗시리아의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진격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대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⁵² 물론 이 역사적 상황은 주전 2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기원전 175-164년 통치)의 종교탄압 아래 놓여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지만⁵³ 앗시리아와 유다 공동체 베툴리아의 대결은 신으로 섬겨지던 느부갓네살 왕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와의 대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⁵⁴ 이와 같이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구분과 대결은 서로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야웨 하나님은 유대 여자 과부 유딧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외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사처럼⁵⁵ 유딧은 홀로페르네스를 죽임으로써 앗시리아의 제국주의적 폭력에 저항하였으며 방화와 살상과 강간으로 얼룩진 전쟁은 끝났다. 유딧기의 저자는 ‘유딧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 여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없었다’(유딧 16:25)는 평화의 소식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젠더적 대립구조 속에서, 약한 자의 구원자인 야웨 하나님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전쟁의 일반적 원칙을 뛰어넘고 뒤집는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가 세상의 평화를 원하시고 요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52 ‘이 나라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라는 사명을 받고 온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영토를 짓밟고 신들을 모시던 숲을 베어버린 다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만을 예배하게 하고 언어와 종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대왕을 신으로 받들게 하였다’(유딧 3:8).

53 김혜란, “상복을 벗고 적진으로 - 유딧” in: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엮음, 「새롭게 읽는 성서의 여성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47-248.

54 그러나 후에 할례를 받고 유다 공동체에 편입된 암몬의 총지휘관 아키오르는(유딧 14:10) 종교적, 민족적 배타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은애, 율글, 26-28.

55 유딧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잠자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칼로 자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유딧 13:7)는 사사기에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삿 16:28)와 매우 유사하다. 율글, 21.

님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약한 자를 붙들어주시는 분이시오 버림받은 사람들의 보호자이며 희망 없는 사람들의 구조자’(유딧 9:11)이고 ‘전쟁을 쳐부수는 하나님’(유딧 16:2)⁵⁶이시기 때문이다.

6. 나가는 말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전쟁 내러티브 본문들에서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젠더적 갈등과 대결의 구도로 나타나는 전쟁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군대와 무기, 그리고 절대적 권력과 억압에 의해 저질러지는 상해, 방화, 살인, 약탈, 강간 등의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이 바로 그것이다. 전쟁의 패턴에서는 인종, 계급, 종교 등 다양한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대결이 교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논문에서 연구한 사사기의 두 본문 그리고 유딧기는 권력과 힘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하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집단 학살, 강간 등 전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모든 구분과 경계를 넘어 위치한 ‘한 여자’의 저항 폭력, 즉 전쟁의 책임자를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특이한 결말로 끝난다. 이것을 통해 전쟁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약 성서의 전쟁 내러티브를 다양한 대립구도라는 틀을 통해 연구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형태 안에 민족, 정치, 계급, 종교, 성별 등 다양하게 얽혀

56 히브리 성서의 ‘야웨는 전쟁의 하나님이다’(출 15:3; 사 42:13)를 칠십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반군사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Helmut Engel, “Das Buch Judit”, in: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Berlin/Köln: Kollhammer, 1995), 199.

있는 위치성과 교차성을 발견하게 하고 전쟁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또한 폭력적인 전쟁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저항 폭력’의 형태와 정당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결국 이 땅위에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점을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전쟁 내러티브를 살펴봄으로써 이전에 특히 고대에 전쟁의 희생자와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여성, 그리고 구분과 갈등의 경계 너머에 위치한 한 여성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전쟁의 폭력에 저항하는 또 다른 힘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평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서의 전쟁 내러티브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전쟁의 무익성과 함께 평화의 필요성과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서 약한 자의 편에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님의 방법의 의외성과 독특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핵무기의 위협과 지속적인 전쟁의 가능성 속에 살고 있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 전쟁의 폭력성과 해악을 명백하게 드러내며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대립성과 복잡성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해결점 또한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특히 기독교는 신대륙 발견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쟁’을 앞세워 제국주의적인 무력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인 선교의 방법을 취했던 만큼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 안에 나타난 전쟁 내러티브에 대해, 개인과 집단이 처한 다양한 위치성과 교차성에 근거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고 대학 강의,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서 본문에 대한 구조적, 문학적 분석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해석과 시대적 요구를 논의해야 한다. 성서본문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를 앞세운 전쟁의 형태와 폭력성에 대한 연구로 확대 될 수 있으며 전쟁이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끼친 피해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윤리학적, 교육학적, 심리학적, 상담학적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와 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사문,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기독교신학논총」 26 (2002), 27-79.
- 강사문, “전쟁에 대한 성서적 이해”, 「선교와 신학」 26 (2010), 13-40.
-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0 (2021), 132-168.
- 김영진/민영진, 「사사기/룻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응중 외, 「전쟁과 문명」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김현아, 「전쟁과 여성」 (서울: 여름언덕, 2004).
- 김희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서울: 복있는사람, 2007).
- 김홍수, “한국 전쟁과 기독교, 1950-1953”, 「종교문화연구」 제2호 (2000), 29-49.
-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원제 Klein, Ralph W., *1Samuel* (Waco: Word Books, 1983).
- 리처드 D. 넬슨, 「역사서」 (이윤경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Nelson, Richard D., *The Historical Book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 마이클 왈저, 「전쟁과 정의」 (유홍림 외 옮김), (고양: 인간사랑, 2009). 원제 Walzer, Michael, *Arguing about war*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4).
- 박신배, 「평화학」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1).
- 박유미,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 (2018), 125-155.
- 박창환, 「여호수아/사사기」 (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9).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I」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원제는 Schmidt, Werner H.,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95).
- 샤론 페이스 진손 외, 「구약의 여인들」 (안효선 옮김),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원제는 Jeansonne, Sharon Pace, (The) storyteller's companion to the Bible. Volume 4, *Old Testament Wome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서정민, “전쟁과 종교 신념의 문제: 한국 전쟁 전후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관계 규정”, 「역사와 현실」 99 (2016), 273-282.
- 신시아 코번, 「여성, 총 앞에 서다: 전쟁과 폭력에 도전하는 여성반전평화운동」 (김엘리 옮김), (서울: 삼인, 2009). 원제 Cockburn, Cynthia, *From Where we stand: War, Women's Activism and Feminist Analysis* (London/New York: Zed Books, 2007).
- 안교성, “한국 기독교의 평화 담론의 유형과 발전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 (2017), 197-223.
- J. 알베르토 소긴, 「판관기」 (한국신학연구소 학술부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원제 Soggin, J. Alberto, *Judge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1).
- 왕대일,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을 3:10aH 4:10a):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사 2:4a; 미 4:3a)에 대한 요엘서의 도전, 그 해석학적 진단”, 「구약논단」 62 (2016), 14-43.
- 유정동, “평화와 전쟁, 그리고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과제”, 「신학과 세계」 62 (2008), 235-288.
- 윤정란, 「한국 전쟁과 기독교」 (과주: 한울, 2015).
-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이경숙 외, 「여성이 읽는 성서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이민수, 「전쟁과 윤리-도덕적 딜레마와 해결방안의 모색」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8).
- 이은선 외, 「3.1운동과 이후 기독교」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9).
- 이은애, “대림구도로 읽는 유딧기-통념 뒤집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7-37.

이장형,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독교 현실주의적 이해”, 『대학과 복음』 10 (2004), 243-259.

이창호,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의 전통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 (2010), 223-268.

임신호, “기드온 이야기(삿 6-8장)와 아비멜렉 이야기(삿 9장)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72 (2019), 66-90.

정진희, “교차성은 차별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인가?”, 『마르크스 21』 16 (2016), 36-50.

정토웅, 『역사 속의 전사들 - 아시리아 전사부터 게릴라까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정현백, “테러, 전쟁 그리고 여성” 『한국여성신학』 48 (2002), 67-81.

정현주,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경계시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3 (2015), 289-303.

조너선 바커, 『테러리즘-폭력인가 저항인가?』 (이광수 옮김), (서울: 이후, 2007), 원제 Barker, Jonathan, *The No-nonsense Guide to Terrorism* (New York: Verso, 2003).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원제 Butler, Judith,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New York: Verso, 2006).

차준희, 『역사서 바로읽기』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차준희, “거짓 평화와 참 평화: 미가 4장 1-5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0 (2018), 156-175.

채은하, “외경의 여성들: 유딧과 수산나”, in: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성서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천사무엘, 『구약 외경의 이해』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최순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지자적 이상: ‘보습을 쳐서 칼을’ 아니면 ‘칼을 쳐서 보습을’ ?(이사야 2:1-5, 미가 4:1-5, 요엘 3:1-10의 성경적 해석)”, 『개혁논총』 30

(2014), 329-358.

최승정, “민족 화해를 위한 성서적 고찰: 성서의 갈등 구조 내에서의 평화”, 『신학전망』 151 (2005), 27-55.

캐롤 A. 뉴스엄/샤론 H. 린지 위엄,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 (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Newsom, Carol A. & Ringe, Sharon H.,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 조호진 역, WBC 8, 서울: 솔로몬, 2011. 원제 Butler, Trent C., *Judge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8).

폴 D. 헨슨,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 (이환진 옮김), 『기독교사상』 29 (1985), 207-227. 원제 Hanson, Paule D., “War and Peace in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vol.38 (1984.10), 341-362.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위엄, 「새롭게 읽는 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홍성혁, “메시아 예언 본문들에 나타난 ‘살롬’ (평화)”, 『구약논단』 55 (2015), 121-152.

Bal, Mieke, *Murder and difference – Gender, Genre, and Scholarship on Sisera's death*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Chisholm, Robert B.,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Stylistic variation as a rhetorical technique in Judg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4(2009), 171-182.

Fewell, Danna Nolan, & Gunn, David M., “Controlling Perspectives: Women, Men, and the Authority of Violence in Judge 4 & 5”,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LVIII/3, 389-411.

Milne, P. J., “What shall we do with Judith?”: A feminist reassessment of a biblical “heroine”, *Semeia* 62 (1993), 37-58.

Newsom, Carol A. and Ringe, Sharon H., ed. *Women's Bible Commentary - expanded e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Niditch, Susan, *War in the Hebrew Bible: A Study in the Ethics of Viol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Niditch, Susan,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O'Connell, Robert H.,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Leiden/New York/Köln: E.J. Brill, 1996).
- Schottroff, Luise u.a., *Feministische Exegese* (Darmstadt: Primus Verlag, 1997).
- Smith, Mark S., "The Passing of Warrior Poetry in the Era of Prosaic Heroes", in: John J. Collins/ T. M. Lemos/ Saul L. Olyan (ed.), *Worship, Women and War: Essays in Honor of Susan Niditch*, Brown Judaic Studies vol.357 (Providence: Brown University, 2015), 3-15
- Soggin, J. Alberto, *Judges* (London: SCM Press, 1981).
- Steinberg, Naomi, "Social-Scientific Criticism: Judges 9 and Issues of Kinship", in: Gale A. Yee(ed.), *Judges & Method –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2.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46-64.
- Taylor, Marion Ann/ de Groot, Christiana (ed.), *Women of War, Women of Wo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 Zenger, Erich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95).

검색어

사사기

전쟁 내러티브

야엘

시스라

저항폭력

아비멜렉

유딧

Violence against war: War Narratives from a Gender Perspective

Eun-Ae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wo texts (Judges 4-5: Judges 9) of the war narrative in the Old Testament. It presents a critical view of the war by revealing the violent characteristics and destructive consequences of the war, namely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among ethnicity, social class, religion, and gender.

The fact that a woman ended the war by killing the head of the commander in a mainly male-centered war can be defined as violence against the war. In the war between Canaan and Israel (Judges 4-5), Jael, the wife of Hebel the

www.kci.go.kr

Kenite, killed Sisera, the commander of the Canaanite army. In the violence of war full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Jael's violence, which lies beyond political, ethnic, and religious distinctions and borders, finally ends the war and the land enters 40 years of peace without war. The intersection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ultilayered confronta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war narrative of chapter 9 of Judges. It is a confrontation of both religious identity and social class, and gender.

The victims of the war were men and women who may not have belonged to Israel and were religious worshippers of other gods, but were in the middle of the war, slaughtered, their lives in danger. When a woman among them killed Abimelech, an illegal and vicious monarch, using one millstone as a weapon, the violent and threatening war finally ended.

The study of war narratives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the framework of various confrontations illuminates various intertwined positions and intersections within the war, including ethnicity, politics, class, religion, and gender.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the form and legitimacy of a countering violence against war, and eventually provides an opportunity to find alternatives as to how to end the war and bring peace to the land. Through this study, we find God's unexpected salvation and uniqueness on the side of the weak by bringing peace with the uselessness of war.

Keywords

Judges

War narratives

Jael

Sisera

Violence against war

Abimelech

Judith

- 투고일: 2021년 7월 15일
- 심사일: 2021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17일

www.kci.go.kr